

# 한국 소울가요의 태동에 관한 연구 -19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원재웅\*, 조태선\*\*  
\*관동대학교 음악학부,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wjwoong@hanmail.net  
\*\*e-mail:entheos@korea.com

## A Study on Beginning of Soul Music in 1960's Korea Popular Music

Jaewoong Won\*, Taeseon Cho\*\*  
\*Dept of Music, Kwandong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 요 약

196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음악의 유입과 음악 감상실의 유행, 방송국 개국 등의 많은 환경적 변화를 통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서양식 유행가와 일본식 유행가라는 2가지 장르의 가요가 인기를 끌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로큰롤, 록, 소울, 포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고르게 성장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음악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당시 유행했던 곡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요장르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 1. 서 론

21세기의 대중음악은 장르의 홍수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만큼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장르교배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아티스트 개인의 개성,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만나는 접점에서 항상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대중음악의 장르이다.

최근에 팝음악은 리듬 앤 블루스를 중심으로 소울에서 힙합에 이르기까지 흑인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 대중음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울 알앤비 힙합 등의 장르음악이 10년 이상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흑인음악의 인기는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소울가요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소울가요의 태동과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1960년대의 음악적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보

고, 당시 많은 인기를 얻은 가요곡과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본 론

#### 2.1 리듬 앤 블루스와 소울

리듬 앤 블루스는 가스펠과 블루스에 기반을 두고 영향을 받아 생성된 모든 흑인음악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블루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했는데 1940년대 이후 파퓰러 음악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이 리듬 앤 블루스이다.<sup>1)</sup> 리듬 앤 블루스 음악가들은 소울과 쿼크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는 새로운 편곡과 리듬을 발전 시켰다.<sup>2)</sup> 소울은 리듬 앤 블루스에 포함되는 하위 장르들이다.<sup>3)</sup>

1) 靑木 啓 지, 「팝 음악의 역사」, 세광음악출판사, 1995, p191  
2) Keir Keightley, 「록을 다시 생각하다」,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사이먼 프리스 엮음), 도서출판 한나래, 2005, p203  
3) 김현준, 「김현준의 재즈파일」, 경향신문사, 1997, p221

소울음악 장르로 분류되어지는 많은 음악들이 시카고와 같은 북부지방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흑인들에 의해 탄생되었는데 각 지역의 가스펠 음악의 특징을 반영한 소울음악 스타일을 각각 만들어내었다. 소울은 1955년에서 1967년에 이르는 바로 그 시기에 리듬 앤 블루스 다음 차원으로 이끌었던 음악에 붙여지는 이름이었다. 소울은 보다 서서히 나오르지만 더 뜨거운 음악이며 보다 즉흥적이고, 연주자의 보컬 개성의 향취가 더욱 독특하며 참여적이다. 소울은 매우 강한 창법과 비트를 사용했다. 가스펠로부터 보컬의 예를 많이 취했으며, 비트는 1950년대 중반 손뼉으로 장단 맞추는 리듬 앤 블루스에 비해 감정이 많이 투여되었다.<sup>4)</sup>

## 2.2 19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환경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한 미8군을 대상으로 한 미8군 쇼는 하나의 씬(Scene)을 형성했다. 미8군 무대에서 연주하는 쇼 단체들은 음악적인 다재다능함을 갖추어야만 했는데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섭렵한 상태에서 청중의 취향에 맞추어 연주하는 노하우가 필요했다. 또한 신곡을 받 빠르게 입수하기 위해 AFKN 라디오를 통해 신곡을 듣고 남들보다 먼저 연습해서 무대에 올려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미8군 쇼의 연주자들은 치열한 경쟁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1961년 서양음악 스타일로 만들어진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한명숙이 부른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는 해방 이후 최대의 음반판매고를 기록하는 인기를 누렸고 이후 현미, 패티킴, 최희준, 이춘희, 유주용 등의 미8군 쇼 출신의 가수들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작곡한 손석우를 비롯해서 박춘석, 길옥윤, 이봉조 등의 작곡가들이 팝 스타일의 가요를 만들었다.<sup>5)</sup>

1960년대 초 두드러진 현상중에 하나는 오디오와 레코드의 혁신적인 발전이다. 특히 레코드 산업의 발달로 SP에서 LP로의 시대, TV의 시대로 생활문화의 메카니즘이 나아가고 있었다. 미8군 연예인들의 방송을 통한 공연무대가 매체의 오락적 기능과 합류하면서 안방극장이라는 특수공간을 형성하며 오디오와 TV를 통한 가요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유행음

악의 초점이 되어갔다.<sup>6)</sup>

## 2.3 소울가요의 등장과 신중현 사단

1960년대 후반 한국대중음악계에는 ‘소울 & 사이키델릭’ 혹은 ‘소울·사이키’라는 이름의 가요가 등장하여 인기를 모은다. 소울과 사이키델릭은 다른 장르에 속하는 음악으로서 소울은 ‘흑인음악’, 사이키델릭은 ‘백인음악’의 갈래다. 당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음악조류를 의미 없이 묶은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많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나 수준이 부족했다는 것을 적절히 보여주는 예이다. ‘소울·사이키’라고 혼합 명명된 새로운 대중음악 팝계열의 조류는 1965년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가요정화운동’으로 많은 일본풍의 가수들이 방송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트로트의 아성을 대신해 가요계의 주류로 떠올랐다. 그리고 1960년대의 청년들은 이 새로운 트렌드에 열광하며 세대간 음악 취향의 분열이 대세임을 보여주었다.

신중현은 1940년 서울태생으로 어린시절 미8군에서 Jacky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1964년 애드 휘 앨범의 전곡을 작사 작곡한 창작곡으로만 된 앨범을 발표했고 리듬 앤 블루스의 색채가 짙은 음반 “빛속의 여인” 등의 곡을 발표했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지는 못한다.<sup>7)</sup> 신중현의 음악은 록과 소울을 넘나들며 한국대중가요계의 획일화 된 음악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보급시키면서 한국적인 모습으로 재창조 되었다. 모타운의 베리고어 주니어로 불리 울 만큼 장현, 펄시스터즈, 이남이, 김추자, 박인수 등의 소울을 대표하는 가수와 곡을 히트시키며 한국대중음악의 지평을 확장하며 의미를 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펄시스터즈는 신중현 사단 중에서도 ‘소울·사이키’ 사운드의 대표주자로 데뷔곡인 “님아”와 “커피 한잔”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1969년 MBC 10대 가수상에서 가수왕에 등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1969년 “MBC는 개국 8주년 기념행사로 2일 하오 6시 30분 시민회관에서 10대 가수 청백전을 열고 최고인기가수상인 가수왕에 펄시스터즈를 뽑았다. 청취자엽서와 입장객의 투표를 집계 선정 했던 이날

4) Russell A. Potter, 「소울에서 힙합으로」,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사이먼 프리스 엮음), 도서출판 한나래, 2005, p243

5) 원재웅, 「1960년대 변안가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8, p26

6) 윤혜숙, 「한국대중음악사에서 바라본 리듬앤 블루스와 소울 : 1950년대 - 1990년대」(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07, p47

7) 김종근, 「Soul 및 Funk 음악스타일이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1960년대~1980년대」(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10, p60

행사에서 펄시스터즈는 2만 9백 87표를 얻었다.”<sup>8)</sup> 이것은 <님 아>, <커피 한 잔>이 ‘가요 서울’이라는 장르로서 가수왕으로 선정된 것이다.

펄시스터즈의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원인은 신선한 창법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 여성 가수는 다소 곱한 모습에 아름답고 애절한 목소리가 지배적이었고, 허스키 보이스와 율동은 소수의 예외였다. 그런데 펄시스터즈는 여가수의 전통적인 창법에서 탈피해 세련되진 않지만 당돌하고 힘찬 목소리, 때론 섹시한 가창을 선보였다. 거기에 더해 노래 가사 또한 은유가 아니라 직설법에 가까웠다. 하지만 펄시스터즈의 엄청난 성공은 무엇보다 미모 율동이 큰 역할을 했다. 빼어난 미모의 약관의 두 자매가 TV 쇼 프로그램에 나와 온몸을 흔들면서 노래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문화 충격에 가까웠다. 가수가 갖춰야 할 요건에 가창력이 전부이던 시절, 이들이 거기에 처음으로 ‘비디오형’ 미모와 춤을 겸비한 존재였다.

펄 시스터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정화는 『봄비/마음』(1969)을 내놓았고, 뒤이어 김추자는 『늦기 전에/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1969)를 발표했다. 이 음반들 모두는 당시 그룹 덩키스를 이끌며 작곡가 생활을 병행하던 신중현이 작사·작곡·편곡을 맡고 연주까지 맡은 ‘신중현 작편곡집’이었다.

소울 가요의 주역이 신중현 만은 아니었다. 작곡가 정민섭을 파트너로 여러장의 음반을 내놓으면서 “당신의 뜻이라면”등을 히트시킨 양미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김희갑의 곡 “진정 난 몰랐네”를 부른 임희숙, 김희갑의 곡인 “서산에 지는 달아”를 부른 리나박 등의 여가수들도 소울풍 가요로 신예 스타로 떠오른 새 얼굴들이다. 이렇게 시작한 펄시스터즈의 소울 여가수의 봄은 하나의 집단적인 흐름으로 정착했다. 당시의 한 잡지 기사를 통해 소울가요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리듬엔 블루스를 첫 시도한 정민섭씨의 경우 <당신의 뜻이라면>(양미란 노래)이 있고 <님 아>와 <커피 한잔> (펄시스터즈의 노래, 신 중현이 소울 사이키), <꽃잎이 지는 밤> (남진 노래, 흥현걸씨) 등이 그렇다. 이밖에도 전형적인 트롯트 풍을 사용하던 백영호 씨가 소울리듬을 시도한 것으로는 펄시스터즈의 <수탉 같은 여자>가 있기가 있었다.”<sup>9)</sup> 흑인보다 흑인음악을 잘 소화해내는 가수<sup>10)</sup>라는 별

칭으로 불렸던 가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박인수이다. 그는 12세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귀국한 고아 출신으로서 1965년부터 미8군 밴드들의 객원가수로 활동했다.<sup>11)</sup> 한국 최고의 소울가수로 군림했던 박인수는 공전의 히트곡 <봄비>를 발표해 애절하고 터질듯한 가창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다.

#### 2.4. 1960년대 소울가요의 창법

‘소울 사운드’는 1969년 폭발해 70년에 상업적으로 정점을 맞이했다. 앞서 예로 든 음반들에서 보듯 음반 표지에 ‘소울’을 내세운 음반들이 여러 종 나온 것은 당시 소울의 대중성과 상업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신문 잡지에서도 가요계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일괄 주역으로 소울을 평가하면서 호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펄시스터즈·김추자·양미란·임희숙·박인수 등 당시 ‘소울 가수’라고 불린 이들을 보면 우선 정체되지 않은 듯 다소 거칠게 열창하는 스타일의 창법을 보여준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Soulful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창을 제외한 음악적인 면에서는 이전의 가요에 비해 훨씬 팝스러워져 있으나 정통 소울에는 근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소울 가요의 작곡자·가수·연주인의 대부분의 미8군 무대 출신이란 점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소울 가요를 만들고 연주하고 부른 주체는 미8군 무대 출신 음악인들이었고, 그들은 컨트리·로큰롤·사이키델릭 등과 함께 소울 음악 역시 카피해서 연주했다.

오티스 레딩, 제임스 브라운,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 벤 이 킹 등의 곡들은 1960년대 중반 미8군 쇼 무대에서 연주되던 주요 소울 레퍼토리였다. 이처럼 소울을 체화한 음악인들이 1960년대 후반 일반 무대로 진출하고 라디오 등을 통해 소울이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음악이 되면서 소울 가요가 유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소울 가요는 단지 장르의 차이를 넘어서 사운드의 변화도 담고 있었다. 비트가 강한 편이고 독특한 리듬에 기초한 일렉트릭 사운드가 당시 소울가요의 사운드였다. 즉, 가수의 열창과 그룹이 연주하는 일렉트릭한 음향은 그 시절 소울 가요의 양대 요소였다. 신중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신예 작곡가이자 미스터로 부상한 김희갑이나 정민섭등이 주도하여 만들

8) 일간스포츠, “歌手王에 펄 시스터즈”, 1969. 12 4

9) 가요생활, ‘1969. 가요계 총결산’, 1970. 1

10) 신중현, 「내 가타는 잠들지 않는다」, 도서출판 헤토, 2006,

p130

11) 김지혜, 「소울 가수 박인수의 가창 스타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9, p10

어떤 음악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대체로 ‘소울풀’했고, 사운드는 ‘사이키델릭’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소울·사이키 가요’라는 혼성적인 용어는 이 시기 음악의 단면을 적절히 묘사해준다. 예를 들어 김추자의 데뷔 음반에 수록된 “늦기 전에”나 “님은 먼 곳에”를 들어보면 기타가 유도하는 사이키델릭에 전형적인 ‘반복 악구’가 등장하지만, 리듬 패턴이나 가수의 가창은 소울의 영향이 완연하다. 창법을 완전히 바꾼 김상희의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다.

펄시스터스의 경우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걸그룹’이라는 형태는 슈프림스나 샘 앤드 데이브 (Sam and Dave) 같은 모타운 소속의 그룹에서 원용했고 실제로 ‘소울풀’이라는 문구로 홍보되었지만, 창법은 제퍼슨 에어플레인(Jefferson Airplane)의 영향을 받았다. 펄시스터스·김추자·김상희 등은 ‘소울 가수’이면서 동시에 ‘사이키 가수’이기도 했다.<sup>12)</sup>

### 3. 결 론

1960년대는 한국의 팝음악이 경제적 사회적 성장과 더불어 발전했던 시기이다. 미국 문화의 유입과 미디어의 발달은 본격적인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일본식 유행가 일색의 대중음악은 스탠다드 팝을 시작으로 트위스트, 로큰롤, 소울, 사이키, 록, 포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 신중현을 중심으로 한 소울 가요가 등장하면서 1960년대 말 큰 인기를 얻게 되며, 한국적 소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펄시스터즈라는 가창력과 춤, 미모의 3박자를 갖춘 퍼포먼스형 가수가 등장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소울과 리듬 앤 블루스가 주류음악의 자리를 잡고 있고 걸그룹이 한류의 큰 축을 이룬 것과 비교해보면 무척 흥미롭다. 그러나 한국적 소울의 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고는 할 수 없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소울가요의 명맥을 잇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음악사에 소울음악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40년 전 한국 땅에서 한국적인 감성으로 흑인음악을 실현했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12) 신중현,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길아트, 2005, p232

### 참고문헌

#### 1. 일반문헌

- [1]靑木 啓 저, 「팝 음악의 역사」, 세광음악출판사, 1995,
- [2]Keir Keightley, 「록을 다시 생각하다」,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사이먼 프리스 엮음), 도서출판 한나래, 2005
- [3]김현준, 「김현준의 재즈파일」, 경향신문사, 1997
- [4]Russell A. Potter, 「소울에서 힙합으로」,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 (사이먼 프리스 엮음), 도서출판 한나래, 2005
- [5]신중현, 「내 가타는 잠들지 않는다」, 도서출판 해토, 2006
- [6]신현준,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길아트, 2005

#### 2. 논문

- [1]김종균, 「Soul 및 Funk 음악스타일이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1960년대~1980년대」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10
- [2]김지혜, 「소울 가수 박인수의 가창 스타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9
- [3]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08
- [4]윤혜숙, 「한국대중음악사에서 바라본 리듬앤블루스와 소울 : 1950년대 - 1990년대」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2007

#### 3. 정기간행물

- [1]일간스포츠, “歌手王에 펄 시스터즈”, 1969. 12 4
- [2]가요생활, ‘1969. 가요계 총결산’, 1970. 1